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뛰고 있다

아직은 서가정리 등 단순업무가 대부분...

자원봉사자 적재적소 활용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공공도서관에서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배가 및 서가정리, 레이블링 등 단순작업을 맡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주인 의식과 공동체 의식의 발현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도서관 현장에 있는 사서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공공도서관이 자원봉사활동의 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자원봉사는 시민들이 금전적인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의 강요나 억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공익을 위해 참가함으로써 자아실현과 사회 발전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활동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주인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참여자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우이웃 돕기에 한정된 우리의 자원봉사 문화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공공도서관 절반 이상 자원봉사자 활용해

국내 공공도서관의 자원봉사 실태는 지난 9월 25일 부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발표된 <공공도서관 자원봉사 관리모델 개발을 위한 공청회>에 잘 나타나 있다. 전국 422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공공도서관 195개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99개 도서관이 현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원봉사자 가운데 청소년이 89.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월 1회 미만으로 1회 평균 두시간에서 네시간 미만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또한 활동기간으로는 3개월

미만이 86.5%에 이르렀다. 자원봉사자들은 배가 및 서가정리, 레이블링 등 단순한 업무가 대부분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1999년부터 200여 명이 자원봉사 활동에 지원해, 현재 10여 명이 활약하고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서가정리, 이용자들이 대출했다 반환한 책들을 서가에 꽂아놓는 단순한 업무다. 일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 체계적인 교육도 받지 않고 서가의 위치나 청구기호 판별방법 등을 배우는 수준이다.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목적은 '직원들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라는 응답이 절반 이상(66.7%)을 차지했다. 자원봉사자 모집방법은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39.1%), 그 외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15.4%), 자원봉사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13.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도서관은 63.7%였으나 실시하지 않는 도서관도 32.4%에 이른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교육능력을 갖춘 담당직원의 부재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기술 없는 지원자가 봉사활동에 참가해

이 실태조사에서는 자원봉사 활용의 문제점

도 지적됐다. 공공도서관은 전문기술을 익힌 지원자가 부족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하지만 자원봉사자들이 도서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86%에 이르러 앞으로 자원봉사자 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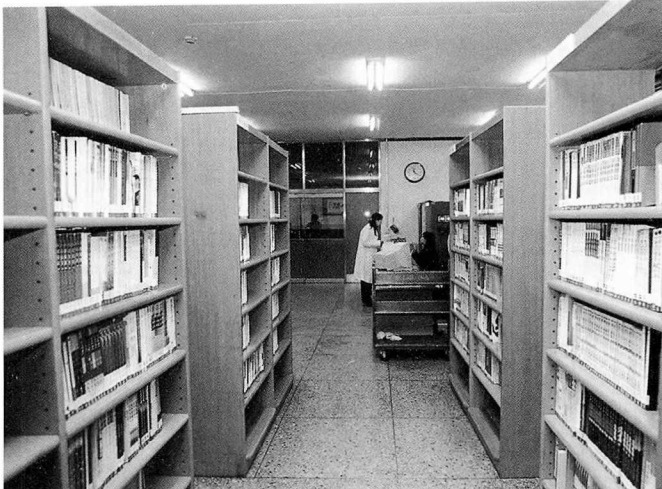
아직은 도서관 직원들이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편은 아니다. 무엇보다 책임의식이 결여됐거나 전문지식 및 기술이 부족한 점, 힘든 업무 분야를 꺼리는 성향 등을 불만사항으로 꼽았다.

도서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은 자원봉사 활용의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할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현재 도서관의 인력구조상 자원봉사자들을 전담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다.

공공도서관은 IMF 구제금융 때 사서를 대량 감원했고, 자연감소분까지 보완되지 않아 사서 수가 나날이 줄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줄이는 계획에 따라, 몇 년 동안 서울시공무원 사서직 채용도 없었다. 올해 들어서야 예닐곱 명을 뽑았지만 이는 턱없이 모자란 수다.

사서 감원으로 기존의 일뿐만 아니라 새로 계획하고 시작한 사업들이 모두 남은 사서의 몫이 됐다. DB구축과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까지 고스란히 사서의 일이 돼 업무량이 더 늘었다. 특히 열람실에서 근무하는 사서들은 본연의 일인 '참고봉사'는 업무도 내지 못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동대문도서관의 윤영희 사서는 "현재 도서관에서 쓰는 도서검색 시스템은 기능이 한정됐기 때문에, 전화로 대출여부를 묻는 등 2차



공공도서관은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지만, 이들을 맡을 사서들은 서가정리와 대출업무만으로도 벅차다. 사진은 한 시립도서관의 관외대출실.

적인 문기가 아직 많다. 우선 책이 제자리에 꽂혀 있어야 하고, 서가에 가서 확인할 사서가 있어야 이용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 있다. 하지만 열람실에서 근무하는 사서는 서가정리와 대출 업무만으로도 벅차다"며 어려움을 털어 놓는다.

하루 대출량이 3천권이나 되는 어린이도서관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유일한 공립어린이도서관이어서 수원에서 찾아오는 독자까지 있을 정도니, 그 업무량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주말의 어린이도서관은 근무자의 "뒤집어진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열람자와 책을 빌려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전문사서 보충 위한 미봉책으로 전락해선 안돼

따라서 몇몇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전문적인 사서 인력을 보충한 다음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자발적인 봉사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사서 업무를 보완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자원봉사에 대한 고정관념이다. 일반적으로 봉사를 '불우이웃 돕기'와 같은 개념으로 인식해, 도서관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데 생각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정독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

는 정민자씨는 대학의 사회봉사과목을 이수하며, 도서관 자원봉사에 나서게 됐다. "학교에서 마련한 과목 덕분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뜻한 바가 있어도 혼자 찾아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며 전문기관을 통한 자원봉사의 이점을 이야기했다.

자원봉사가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봉사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을 공공도서관에 연결시키는 제도적인 장치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 못지 않게 공공도서관에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자를 관리·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자원봉사 지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 지침에 따르면, 도서관은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일 때,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서비스의 전개를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자원봉사자를 받아들이기 전에 도서관 활동에 따라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관계자들이 잘 의논해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통으로 인식하게 된 대응방침 등은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자원봉사자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할 때, "활동하는 부서의 방침을 따른다. 활동하기로 한 날짜와 시간을 지킨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지킨다. 이용자를 평등하게 대한다.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은 담당직원에게 확인한다" 등의 규칙을 지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차정신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는 이은희씨

이은희씨(53)는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사회봉사를 할 것이라는 오랜 계획과 바람을 이뤄, 3년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

"1999년 <서초신문>에 난 공고를 보고, 모집인원이 다 찰까봐 그날로 달려가 접수했어요. 활동해 보니 나처럼 봉사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녀는 혼자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 되도록 공무원을 돕는 일을 찾다보니 도서관에서 일하게 됐다.

"주로 서가정리를 해요. 읽고 아무렇게 두거나 서고에 들어오는 책들을 정리하죠. 일주일에 한 번, 세시간 동안 일하는데, 이젠 이력이 붙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쉽고 편한 봉사를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는 그녀는 명색이 도서관 자원봉사자나 책 수리하는 방법도 배우고 싶다며, 일 욕심도 내비친다.

"지난 연말에는 감사패를 받았는데, 부끄러워서 시



상식장에 못 갔어요. 힘들게 일하는 직원들 중무식에 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그냥 달력이나 주고 말지 그랬죠."

매주 화요일, 어김없이 서가를 누비는 그녀는 가족과 함께 할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젠 생활이 된 도서관 자원봉사를 이야기하며,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오게 잘 써주세요" 하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